



제10회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4일과 5일 진안군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열린다.

# 한여름 밤 무더위 시원하게~

### 제10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내일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개최

제10회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4일과 5일 진안군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열린다.

제23회 동향면민의 날과 함께 진행되는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4일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행사, 체육행사, 공연, 전시, 지역특산물인 수박·한우 할인 판매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저녁 6시부터는 구리고를 노래잔치에는 김용림, 진성 등 가수들이 출연하고, 새롭게 준비된 추억의 나이트DJ 댄스파티에서 민민과 관

객들의 흥을 북돋아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둘째 날은 동향면민의 날을 기념해 투호, 제기차기 등 체육경기가 진행되고, 지역가수와 추억의 5인조 악단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짝짜 수박 경매, 수박 주스 빨리 마시기, 수박 무게 맞추기, 수박 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축제장에 오면 품질 좋은 수

박과 한우를 시세보다 약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박모형 뉘시 체험'이 신설돼 수박모형 캡슐을 자석뉘시대로 뉘으면 경품을 얻을 수 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 물놀이가 가능한 에어바운스가 설치돼 휴가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마령면민의장 수상자 3명 선정

### 문화체육장 강수영·애향장 전명식·효열장 김희정씨

진안군 마령면(면장 이승호)은 최근 마령면민의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면민의장 수상자로 문화체육장에 강수영, 애향장에 전명식, 효열장에 김희정씨를 각각 선정했다.

강수영 문화체육장 수상자는 진안군민의 날 배구대회에 출전하여 마령면이 3회 연속 우승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한국U18 남자배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령의 인재로 인정받았다.

전명식 애향장 수상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송죽회(재경마령면향우회 지문모임) 총무를 역임하면서 향우 단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경마령면향우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고향 행사에 적극 참여하

고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희정 효열장 수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20년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도 수년간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공을 인정받았다.

마령면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령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2001년에 처음 제정된 마령면민의 장은 올해로 3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면민의 날 수상자는 오는 15일 마령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제53회 마령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면민의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 장수, 수족구병 예방 홍보 강화

장수군보건소의료원에서는 최근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주 걸리는 수족구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족구병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에 나섰다.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3~7일로 발병 1주일이 가장 전염력이 강하여 손발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전염 경로는 수족구병에 걸린 환자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오염된 물건(물수건, 장난감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히고 이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 잇몸, 뺨의 안쪽점막과 손, 발 등에 빨갛게 선이 돌린 쌀알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이 발진은 1주일정도 지나면 호전된다.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 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족구병은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 씻기 및 장난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족구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부남면민의 날 '강변축제'가 오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부남면 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 색다른 즐거움, 주말에 '강변축제' 가자

###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일원서 내일 한마당 대잔치

무주군 부남면민의 날 '강변축제'가 오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부남면 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부남면이 주최하고 부남면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제27회 부남면민의 날을 기념하고 휴가철 부남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부남디딤방아액막이놀이와 난타공연, 기념식, 민속경기(투호, 고리걸기, 게이트볼치기, 맨손으로 고기잡기), 민노래자랑과 초창기수 초창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내일아트와 서금요법, 귀 반사, 쑥뜸 등이 부대행사로 마련돼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주군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 유영길 회장은 "강변축제는 아름다운 금

강을 배경으로 개최돼 주민화합을 주도하고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기는 축제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라며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출향인, 관광객,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화합 한마당 잔치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부남면은 금강과 마실길, 버룻길 등을 기반으로 래프팅과 트레킹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사과와 고추, 인삼과 껌잎을 주로 생산하며 디딤방아액막이 놀이를 통해 마을 자원의 우수성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주민의견 귀담아

### 무주군, 개최장소 관내 VS 관외 두고 공청회 열어... "최고의 축제 준비 최선"

무주군은 2일 제4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관련 주민공청회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축제 개최장소를 관내로 할지, 서울 양재, 성남, 고양, 창동 하나로마트 등 대도시로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북대학교 김중기 교수와 전주대학교 오영택 교수,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본부 이소진 지사장,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는 대축제가 걸어진 길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왕 하는 축제 돈도 벌고 인정도 받아야 하고, 농가들 사이에선 참여하고 싶은 축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다려지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서 의견들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날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장소를 결정해 제4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11월 2일과 3일 이틀 간 본 행사를, 6일 간은 홍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축제는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

인이 주관하며 NH농협무주군지부와 무주군산림조합,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진정축협,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등으로 진행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신상범 기술기획 담당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농업인들이 모아주신 의견들을 따라 올해 축제는 더 성대하고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을 제대로 알려 잠재 고객을 늘리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 '20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진안군은 지난 6월 관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청년고용 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며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군은 지난날 사업참여 업체와 참여 희망 청년을 각각 모집했으며 최근 진안군 일자리창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6개 업체와 15명의 청년을 선정했다.

이러 지난 1일에는 업체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근무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9월중에는 지역공동체 청년 활동가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군은 업체에 청년 1인당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진안군은 향후 중앙부처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군 자체 청년일 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